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83



Contents

※ 2025.06.12.(목) 기준(대상 기간 : 2025.06.05.~2025.06.11.)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 완주 수소에너지고,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2025.06.05)	1
- 전북자치도, 예비수소전문기업 15개사 선정 (2025.06.05)	1
- 부산시, 전국 최대 규모 수소청소차 도입 시민공개 행사 (2025.06.05)	2
- 제주 5000억원 수소트램 도입 본격화, 20일 공청회 (2025.06.05)	2
- 울진군,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연계, 지역 인재 양성 본격화 (2025.06.05)	2
- 제주 '그린수소' 기저전력화 박차, "재생에너지 70%로" (2025.06.08)	3
- '석탄화력 경제' 충남, 친환경 수소경제로 대전환 시동 (2025.06.09)	3
- 평택시장 "평택은 국가안보의 심장, 반도체·수소로 미래를 견인할 것" (2025.06.09) ·	3
- 동해시, 수소산업 전략거점 도약 본격화 (2025.06.09)	4
- 액화수소 설비 시동, 창원시에 매일 수천만 원 청구서 (2025.06.09)	4
■ 우주	
- 국제 우주 컨퍼런스 2025 개막, 대전시 글로벌 우주 허브 선언 (2025.06.05)	5
- 전주시, 탄소·항공우주산업 유럽시장 진출 나서 (2025.06.05)	5
- "우주항공도시 사천과 은빛레이스의 만남 기대" (2025.06.06)	6
- 대전시, '우주항공·바이오·반도체·양자 전략산업 교류 협력 성과 가시화 (2025.06.10)	6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 경남테크노파크,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모집 (2025.06.08) 7

■ UAM

- 다이텍연구원, 180억 투입, UAM 소부장 국산화 나서 (2025.06.09) 7

■ 우주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8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 남동발전, 석탄 넘어 수소발전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나선다 (2025.06.05) 8
- KAIST "고가의 백금 없이 수전해, 수소경제 실현에 한 걸음" (2025.06.11) 9

■ 우주

- 베큐멕스, 반도체·우주항공 위한 아웃가싱 서비스 선보인다 (2025.06.05) 10
- 한화, 우주 인재 키운다..동아리 14곳 선정 (2025.06.10) 11
- 국립창원대·한국섬유개발연구원, 우주·항공분야 국산화 나선다 (2025.06.05) 11
- 트럼프·머스크 충돌에 미국 우주계획 흔들릴 수도 (2025.06.06) 12
- 무서운 中 15차5개년계획, 반도체·AI·로봇·항공우주·바이오 정조준 (2025.06.10) 12
- "우주·AI기술 융합, 시추 앓고도 극지방서 희토류 탐사" (2025.06.10) 12
- 재사용발사체, 우주 패권 넘어 산업 지형을 바꾸다 (2025.06.09) 13
- 韓 첨단기술 세계 5위, 바이오·우주·양자는 10위권 (2025.06.09) 13
- "한국, AI·바이오·양자·우주 핵심 신기술 중위권" (2025.06.10) 14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 완주 수소에너지고,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2025.06.05)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완주 수소에너지고등학교가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발표. 특성화고-교육청-지자체-지역 기업 간 협약을 맺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교육-취업-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기술인재 양성 - 수소에너지고는 완주군의 전략산업인 수소에너지 산업에 맞춘 학과 개편과 학교명 변경을 단행하고 기존 기계·전기 중심의 교육과정을 수소에너지 분야로 재구조화 - 완주군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내 수소에너지 관련 주요 기업과 채용 협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이 재학 중 현장실습과 직무 교육을 받으며 졸업 후 지역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진로 지원 제공
	□ 전북자치도, 예비수소전문기업 15개사 선정 (2025.06.05) -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산업 전환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도내 유망 중소기업 15개사를 올해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대상 기업으로 최종 선정. 전북자치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수소 기술을 보유했거나 관련 매출이 있는 중소, 중견기업을 발굴해 미래 수소 전문기업으로 육성 - 선정된 기업에는 기술사업화와 판로개척, 전문가 컨설팅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형 프로그램과 기업 당 최대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 - 수소 전문기업은 총매출에서 수소 관련 매출 또는 연구개발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산업부로부터 지정받을 수 있으며 지정 시 정부 수소사업 참여 기회와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부산시, 전국 최대 규모 수소청소차 도입 시민공개 행사 (2025.06.05) - 부산시가 시청 야외주차장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수소청소차 도입을 기념하는 시민 공개행사를 개최하고 친환경 청소차량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의지를 표명 - 압축식진개차와 압축트럭 두 종류로 현대자동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한 번 충전으로 최대 400~500km 주행이 가능 - 경유 폐기물 차량 1084대 중 내구 연한이 지난 차량부터 단계적으로 교체해 2028년까지 총 65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올해는 국비 포함 총 42억7000만 원을 투입해 동구에 2대, 영도구·동래구·수영구에 각 1대씩 우선 배치
	□ 제주 5000억원 수소트램 도입 본격화, 20일 공청회 (2025.06.05)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공항과 신제주, 구도심 구간에 수소트램을 도입하는 계획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오는 20일 오후 2시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개최 - 제주항, 동문시장, 제주공항, 연동사거리, 노형오거리, 1100로를 연결하는 12.91km 구간에 5293억원을 투입해 수소트램을 도입할 예정이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한 경제성 분석에서는 0.79로 나타남 -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기준인 0.7을 넘어섰다고 수소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7월 도의회 의견청취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하반기 중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
	□ 울진군,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연계, 지역 인재 양성 본격화 (2025.06.05) - 경북 울진군이 경일대학교 울진캠퍼스에서 K-U시티 프로젝트 울진 컨소시엄 발대식을 가지고 인재양성 및 지역정주 활성화 사업에 본격 착수. K-U시티 프로젝트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청년들의 교육과 취업 기회 제공 및 지역 정착 지원 - 경일대는 수소·원자력 분야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 개발지원 프로그램으로 차세대 에너지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준비 중이며 영남대는 수소산업 분야별 마이크로 전공 및 대학원 과정과 기업 맞춤형 산학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교육과 연구개발을 공동 추진할 계획 - 경북대는 지역 고교생과 대학생/대학원생, 참여기업이 함께하는 소그룹 산학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현장 방문 교육과 특강 등 실무 중심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제주 '그린수소' 기저전력화 박차, "재생에너지 70%로" (2025.06.08) - 제주도가 2035 탄소중립을 기치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7기가와트로 늘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을 품고 있으며 남은 봄 가을의 에너지들을 여름철까지 보관하기 위해 에너지 캐리어 기능을 할 수소가 필요하다고 강조 - 제주도는 연 6만톤 이상 그린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는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그린수소 초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축되었고 수소충전소랑 버스를 전국에서 가장 늦게 들여왔지만 연료원으로써 그린수소 활용은 전국 최초 - 제주도는 오는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를 10개소 구축하고 수소버스 300대, 청소차 200대를 보급하기로 했으며 한림읍 행원리 일대에 300억원을 들여 3MW급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을 추진 예정
	□ '석탄화력 경제' 충남, 친환경 수소경제로 대전환 시동 (2025.06.09) - 충남도가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주력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 충남은 전국 석탄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몰려 있어 온실가스배출량이 2022년 1억4555만t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 충남도는 올해부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시작하는 태안군에 탄소포집형 수소생산 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며 태안읍 인평리 일원 1만2397㎡의 부지에 2028년까지 170억원을 투입해 건립. 천연가스를 개질해 하루 1t, 연간 360t가량의 수소를 생산해 태안 지역 수소 차량 등에 공급할 예정 - 천연가스 개질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95% 이상을 포집한 뒤 고순도 탄산칼슘을 만들어 플라스틱 가공 업체 등에 보낼 계획이며 올해 탄소 흡수를 위해 2152ha 규모의 조림사업도 추진
	□ 평택시장 "평택은 국가안보의 심장, 반도체·수소로 미래를 견인할 것" (2025.06.09) - 정장선 평택시장이 평택을 대한민국의 평화 그 자체라고 강조하며 안보를 위한 희생에 보답하고 반도체와 수소 등 미래 산업을 통해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힘 - 평택시는 2040년 인구 107만 명을 목표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이고 있으며 경기도 유일의 국제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생산-유통-활용이 모두 가능한 대한민국 수소 1번지로 도약할 계획 - 연간 160만 대의 자동차가 수출입되는 평택항과 인근의 현대·기아차 공장을 연계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며 안보와 첨단산업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바탕으로 평택을 대한민국 신성장 핵심 거점인 베이밸리의 중심으로 키워낼 것
	□ 동해시, 수소산업 전략거점 도약 본격화 (2025.06.09) - 강원 동해시가 미래 신성장 동력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고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부지 매입을 지난 5월 완료하고 6월부터 핵심 기반시설 설계 공모에 진입 - 이 사업은 총 3177억 원이 투입돼 동해시에 연구·실증 인프라와 기업 입주 공간을 마련하고 삼척에는 수소액화플랜트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이며 전국 최초로 지정된 수소특화단지 내에서 진행 - 동해시는 올해부터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전주기 분야 R&D 과제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두 개 기업에는 연간 최대 1억 원씩 사업비를 지원하여 소재와 부품 국산화 및 제품 상용화를 앞당기고 지역 내 산업 생태계를 다질 계획
	□ 액화수소 설비 시동, 창원시에 매일 수천만 원 청구서 (2025.06.09) - 창원시 액화수소설비 사업 대주단이 하이창원을 인수해 이달 말 설비를 가동할 계획이며 설비가 가동되면 창원산업진흥원은 협약서에 따라 매일 액화수소 5t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으로 하루 7600만 원, 연간 270억 원 규모 - 창원에서 수소 버스 115대, 수소 승용차 1600대 등 하루 최대 수소 소비량이 2.4t에 불과하고 수소충전소는 민간 한 곳을 포함해 11곳이 있지만 기체뿐만 아니라 액화수소 충전이 가능한 곳은 대원충전소 한 곳뿐 - 효성중공업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에 100억 원가량을 들여 액화수소충전소를 지을 계획이지만 구축까지 1년가량 걸릴 예정이며 창원시는 지난 1월 대주단을 상대로 구매 계약에 대한 담보가 시의 빛이 아니라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 국제 우주 컨퍼런스 2025 개막, 대전시 글로벌 우주 허브 선언 (2025.06.05) - 대전시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 국제우주컨퍼런스 개막식을 개최하고 글로벌 우주산업 중심지로서의 비전을 공식화했으며 대전시와 글로벌 우주기업 컨텍스트페 이스그룹이 공동 주최하여 미국, 독일, 일본 등 40개국에서 온 우주 전문가, 학계, 산업계, 정부 관계자 등 3000여 명이 참석 - 행사에서는 우주 사이버 보안, 위성 통신, 우주 정책 등 다양한 분야별 세션이 개최 되었으며 핀란드 ICEYE, 독일 Exolaunch, 미국 VIASAT 등 해외 주요 우주기업은 물론 국방과학연구소, KAIST, 스태랩, 두시텍, 무인탐사연구소, 달로에어로스페이스 등 대전 지역 기업 및 연구기관도 대거 참여 - 행사 기간 중 룩셈부르크, 일본, 이탈리아 등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총 3건의 업무협약이 체결되었고 20건 이상의 국제회의가 진행되어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됨 □ 전주시, 탄소·항공우주산업 유럽시장 진출 나서 (2025.06.05) - 전주시가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시 대표단이 6일부터 14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 으로 유럽 3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체코 등 3개국 방문 중 전주상공회의소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주지역 탄소기업 관계자들이 동행 - 폴란드 복합재 기술 클러스터와의 간담회를 통해 복합소재 및 첨단기술 분야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폴란드 제슈프시청에서 제슈프시와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항공우주, 탄소복합재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 - 전주시 대표단은 제슈프시 내 항공산업 클러스터인 항공밸리와 글로벌 항공엔진 제조기업인 MTU 에어로엔진스 폴츠크를 차례로 방문해 전주시역 탄소기업과의 기술협력 가능성도 모색하며 체코 오스타라바 현대자동차 현지공장 등도 방문할 계획
	□ "우주항공도시 사천과 은빛레이스의 만남 기대" (2025.06.06) - 박동식 경남 사천시장이 투르 드 경남 2025 사천 스테이지를 하루 앞둔 인터뷰에서 한국판 나사인 사천 우주항공청에서 은빛 레이스가 펼쳐져 감회가 남다르다고 표현하며 대회 사흘째인 6일 사천 구간 레이스는 우주항공청에서 출발 - 지난달 개청 1년을 맞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힘을 쏟고 있는 시 입장에서 이번 대회는 사천을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투르 드 경남을 통해 바다와 하늘, 육지를 아우르는 우주항공 및 해양관광 중심도시 브랜드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 - 사천은 자전거를 타며 산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박 시장이 가장 추천하는 코스는 이순신 바닷길이며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 코스 60선에 선정한 명소로 시민과 동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
	□ 대전시, '우주항공·바이오·반도체·양자 전략산업 교류 협력 성과 기사화 (2025.06.10) - 이장우 대전시장이 10일~18일까지 캐나다 퀘벡주와 미국 보스턴을 방문해 대전의 전략산업인 우주항공·바이오·반도체·양자 분야 글로벌 협력 확대에 나서며 과학 분야 교류를 위한 경제사절단과 양자사절단, 한밭대학교, 대전테크노파크 등이 동행 - 캐나다 퀘벡주는 자치권과 재정·행정 역량을 갖춘 주정부로 항공우주·양자·바이오 등 분야별 과학산업 클러스터가 몬트리올·셔브룩 등 도시별마다 체계적으로 구축된 북미 대표 혁신지역이며 우주항공 산업 기관 및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 - 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대전테크노파크가 참여하는 대전-퀘벡주 간 양자산업 협력 협약식이 진행되어 양 지역간 양자 산업 협력이 고도화될 예정이며 세계 최대 바이오 전시회인 BIO USA에 참가해 대전 바이오 기업 부스를 방문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경남테크노파크,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모집 (2025.06.08) - 경남테크노파크가 오는 13일까지 2025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혜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히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소연합, 경남도, 김해시, 경남 TP가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달 경남도 전체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기업 10개사를 선정 - 이번에는 2개의 지원기업을 모집하며 김해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중 수소 산업 분야의 매출 실적 또는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대상. 지원분야는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인증 취득, 지식 재산권 출원·등록, 기술 도입·이전 비용, 장비활용, 공정 혁신, 시장 조사, 디자인 개발, 홍보 마케팅, KGS 안전·실무자 역량교육 등 - 지원기업은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필요한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한은 오는 13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다이텍연구원, 180억 투입, UAM 소부장 국산화 나서 (2025.06.09) - 다이텍연구원이 도심항공교통 UAM용 소재·부품 국산화에 나서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소재·부품·장비 미래혁신기반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 2028년 말까지 국비 100억원 등을 포함해 총 180억원이 투입되며 대상은 습식 파우더 기반 열가소성 프리프레그라는 소재 - 기존 소재보다 성형 속도가 빠르고 재활용성과 내충격성 등이 뛰어나며 프리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레그와 자동 적층 공정을 접목하면 복합소재 부품 대량 생산과 품질 일관성 확보가 가능해 UAM산업의 핵심 경량·고강도 부품소재로 주목 - 다이텍연구원은 전주대 내 UAM 복합재 기반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기존 탄소 복합체 가상공학센터와 연계해 UAM용 외장 구조재 및 내장 안전 부품 등 복합소재의 경량·고강도 구조화,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인공지능 기반 공정 최적화 등에 착수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남동발전, 석탄 넘어 수소발전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나선다 (2025.06.05) - 남동발전과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차세대 친환경 수소전소터빈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개발 체계를 본격 가동. 정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응해 무탄소 전원 확대를 위한 청정수소 발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남동발전은 기존 석탄 화력발전소 부지 내에서 수소전소 터빈 기술을 활용해 무탄소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경남 지역 RE100 실현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 충청남도, 당진시, 삼성물산과 함께 수소발전 900MW를 주축으로 하는 당진 그린 에너지 허브 사업도 추진 중이며 중형급 수소전소 터빈 실증과 연계 예정
대학교	□ KAIST "고가의 백금 없이 수전해, 수소경제 실현에 한 걸음" (2025.06.11) -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김희탁 교수 연구팀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두기수 박사와 공동연구를 통해 고가의 백금 코팅 없이도 고성능을 구현할 차세대 수전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 이리듐 산화물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비효율적 전자 전달 때문이라는 점과 단순한 촉매 입자 크기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세계 최초로 입증 - 촉매-이온전도체-티타늄 기판 사이에서 전자 통로가 차단되는 핀치 오프 현상이 전도성 저하의 핵심 원인이라는 것을 규명하고 이리듐 산화물 입자의 크기를 20nm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 이오노머 혼합 영역이 줄어들어 전자 통로가 확보되고 전도성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입증 - 이번 성과는 고성능 촉매 소재 개발과 향후 수전해 과정에서의 귀금속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고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양이온 교환막 수전해 시스템 상용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해당 없음)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베큐맥스, 반도체 · 우주항공 위한 아웃가싱 서비스 선보인다 (2025.06.05) - 장비 개발 전문 스타트업 베큐맥스가 반도체 · 우주항공산업을 위한 아웃가싱 측정장치를 개발하고 반도체 · 우주항공 분야 핵심 품질검증 항목인 아웃가싱 특성 시험평가 서비스를 정식 선보임. 국제적으로 공인된 ASTM E595 표준을 기반으로 TML과 CVCN을 정확하게 측정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이전받은 ASTM E595 시험장치 설계 · 운용기술을 적용해 장비의 신뢰성을 대폭 강화했으며 교차오염 없이 한번에 다수의 샘플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 기존 장비 대비 측정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 - 민간업체가 아웃가싱 관련 장비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우주산업 분야 핵심 시험 기술의 민간 상용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국내에서도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국산 테스트 솔루션을 저비용 고효율로 이용 가능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한화, 우주 인재 키운다..동아리 14곳 선정 (2025.06.10) - 한화가 우주 인재를 키우기로 하고 우수 동아리 14곳을 선정했으며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공동으로 스페이스 챌린저 우주동아리 지원 공모전을 완료하고 우수 동아리 시상식을 진행 -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국의 대학 우주 동아리를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발사체 부문 8개 팀, 위성부문 6개 팀 등 총 14개 동아리를 선정했으며 수상한 동아리는 활동 지원금과 함께 한화 우주 사업 전문가들의 기술 멘토링 및 커뮤니티 네트워킹 등의 기회가 제공 - 한화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우주 특화 교육 프로그램인 우주의 조약돌, 10개 대학과의 산학협력 네트워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허브 등 우주 인재의 발굴-육성-채용으로 이어지는 인재 양성 로드맵을 실천
대학교	□ 국립창원대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우주 · 항공분야 국산화 나선다 (2025.06.05) - 국립창원대학교와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첨단섬유소재 및 우주항공 분야 공동연구와 기술발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첨단소재 및 우주 · 항공소재 분야 공동연구, 연구 및 기술 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 · 물적 · 시설 지원 등에 상호 협력기로 함 - 우주 · 항공분야 국산화 연구개발, 차세대 첨단소재 및 인공위성 핵심부품 등 공동 개발, 우주항공청의 신사업 발굴과 연계한 공동연구 추진 등에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며 정부의 핵심 기술 · 산업 전략 흐름에 부합하는 선제적 조치 - 이번 협약은 우주항공 및 방산 분야에서 요구되는 첨단섬유소재의 기술 자립화, 신규 용도 확대, 전문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미래모빌리티, 로봇, ABB, 첨단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과 섬유소재 기술의 융합을 선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 트럼프 · 머스크 충돌에 미국 우주계획 흔들릴 수도 (2025.06.06)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미국의 우주계획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예산에서 수십억 달러를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끊는 것이라고 발언 - 머스크는 대통령의 계약 취소 발언에 따라 스페이스X는 드래건 우주선 철수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받아쳤으며 이런 상호 협박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미국의 우주계획과 군사정보 수집에 큰 지장이 불가피할 전망 -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건 우주선은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에 우주인을 보낼 수 있도록 당국 인증을 받은 유일한 미국 우주선이며 만약 머스크가 공언한
	□ 무서운 中 15차5개년계획, 반도체 · AI · 로봇 · 항공우주 · 바이오 정조준 (2025.06.10) - 중국공산당이 국무원과 공동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경제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내년 3월에 전문이 공개되는 15차 계획은 첨단 산업 발전과 제조업 강화, 내수 확대 정책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 - 15차 5개년 계획은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을 전략적 위치에 두어야 하고 과학 기술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발언 - 중국 최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15차 5개년 계획은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 휴머노이드 등에 대한 투자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하며 지난해 중국의 R&D 투자액은 3조 613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
	□ "우주 · AI기술 융합, 시추 않고도 극지방서 희토류 탐사" (2025.06.10) - 호주의 우주 스타트업 플릿스페이스가 인공지능과 우주 기술로 지하자원 탐사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저궤도 위성과 AI, 스마트 지진 센서를 융합한 지질탐사 플랫폼 엑소스피어를 개발하고 글로벌 광물 기업들에 솔루션을 제공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 스마트 지진 센서 지오투와 저궤도 위성 센타우리를 활용해 물리적 시추 없이 지하 2.5킬로미터까지 지질 형상을 고해상도 3차원으로 시각화하며 기존 시추 방식보다 최대 100배 빠르게 자원을 발견 - 리오틴토, 배릭골드, 코어리튬 등 40개 이상의 글로벌 광산 기업이 엑소스피어를 도입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광산 기업 마텐은 지난해 엑소스피어 도입 후 메카 인근에 매장된 초대형 금광을 발견하고 자국의 부존 광물 자산 가치를 기존 1조 3000억 달러에서 2조 5000억 달러로 상향 조정
기타	□ 재사용발사체, 우주 패권 넘어 산업 지형을 바꾸다 (2025.06.09) - 지난해 전 세계에서 쏘아 올린 발사체는 총 261회로 하루가 멀다고 로켓이 솟아 오르며 이 가운데 60%는 미국의 몫이었고 발사 빈도는 더 잦아졌으며 시장이 요구하는 발사 속도와 효율에 대한 기대치도 점점 높아짐 - 6G 통신 인프라, 정밀 기상 관측, 고성능 항법장치, 군집 위성 기반의 정찰 시스템 등 첨단 산업과 국가 안보 체계는 다량의 저궤도 위성을 필요로 하며 자국 발사체로 자국 위성을 자주적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역량은 미래 생존 조건이 됨 - 한국도 최근 발사체 개발 방향을 소모성에서 재사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정부는 2035년까지 킬로그램당 발사 단가를 2500달러 수준으로 낮추고 그해 첫 한국형 재사용발사체 발사를 목표로 함
	□ 韓 첨단기술 세계 5위, 바이오·우주·양자는 10위권 (2025.06.09) -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파 센터가 발표한 핵심 신흥 기술 인덱스 2025 보고서에서 한국이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우주, 양자 등 5개 신흥 기술에서 주요 25개국 중 미국, 중국, 유럽, 일본에 이어 5위를 차지 -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중국, 일본, 대만에 이어 5위를 차지했으며 AI에서는 9위, 바이오에서는 10위, 우주는 13위, 양자는 12위로 특히 AI 분야에서는 일본을 근소하게 앞섰지만 인도보다 낮은 점수를 받음 -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 현재 핵심 신흥 기술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기술 수준에 큰 차이가 없어 미국, 중국을 잇는 다른 국가들의 순위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평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 "한국, AI · 바이오 · 양자 · 우주 핵심 신기술 중위권" (2025.06.10) - 바이오, 양자, 우주 등 핵심 신기술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주요국 중위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가 가중치가 높은 반도체 덕분에 종합 순위는 25국 중 5위로 집계되었지만 총점은 1·2위인 미국·중국의 절반 이하로 낮음 - AI · 바이오 · 양자 · 우주 등 분야별 순위도 최상위 국가들과 차이가 많이 났으며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벨퍼 센터가 5대 핵심 신기술 분야의 국가별 순위를 집계한 것은 올해가 처음 - 한국은 생성형 AI 분야의 기술 격차가 있는데 기업의 투자는 감소 추세이고 AI 인력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인구 감소와 과학 · 기술 · 공학 · 수학 분야 학생들이 의학 분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에 따른 인재 부족 문제의 영향이 심각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